

보주산

보주산(해발고도 409 m)은 수 세기 동안 불교 예배와 산악 수행의 거점이었습니다. 오늘날, 훼손되지 않은 이 숲은 자비의 보살인 **33 구의 관음보살**이 늘어선 하이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보주산이라는 이름은 ‘승려들이 사는 산’을 의미하며, 과거 승려들이 이 산에 살았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후에 도호쿠의 에미시를 평정한 것으로 알려진 쇼군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758~811 년)와 싸웠던 나가쓰라 형제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매우 긴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삼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 두 명은 다무라마로군과 싸우다 죽었지만, 장남은 보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무라마로가 도망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자 산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형제를 잃은 것을 비탄하고 있던 살아남은 장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남의 울음소리는 너무 커서 산의 사원을 파괴하고 그 아래에 있던 그도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산의 하이킹 코스에 늘어서 있는 33 구의 관음상은 1860 년에 현지인들에 의해 봉납되었습니다. 관음은 불교 경전에 33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일본에는 33 구의 관음상을 잇는 순례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루트를 따라 33 곳을 순례하면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고쿠 33 소순례’와 같이 여러 도도부현에 걸쳐 있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루트도 있습니다. 이 루트들은 ‘순례길’로 불리며, 나라시대(710~794 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수 세기 동안 인기가 높아지며 더 짧고 접근하기 용이한 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는 불과 몇 시간 또는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 보주산에 있는 33 구의 관음상은 그 한 예입니다.

관음상을 돌아보는 루트는 보주 신사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도리이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하이킹 코스는 산을 올라 능선을 따라 약 5km 를 가면 사원 거주지 터에 있는 삼십삼관음상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산 건너편으로 가려면 30 분 0.8km 코스와 70 분 2km 코스가 있습니다.

보주산의 지형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군데군데 가파른 곳도 있으니 적절한 복장이나 신발을 권장합니다. 하이킹 코스의 전체 일정 소요 시간은 약 4 시간이며, 대부분의 코스는 나무 그늘을 지나갑니다. 주차장은 제 2 등산로 입구가 있는 보주 신사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능선을 오르는 옆길이며, 9 번째 관음상 근처에서 관음상을 둘러보는 루트와 합류합니다.